

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494억, 호남고속철 2단계 1100억 반영

광주·전남 내년도 예산 분석

광주~완도 고속도 149억, 순천만정원 운영비 33억 편성

자동차 100만대 조성사업·동서통합지대 조성 반영 안돼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375조4000억원)와 비교해 3.0%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광주·전남도 국비 사업비는 각각 1조6447억원, 5조2000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각각 2.2%, 3.6%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광주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기반 조성 사업, 전남의 동서통합지대 조성 선도사업 등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남은 국회 예산심의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 예산과 일부 증액이 필요한 예산 확보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광주·전남 주력 사업은? = 광주시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문화관광 분야 사업비로는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및 콘텐츠개발(494억원), 예술인 창작지원(11억원), 청소년 문화센터 조성 및 기능

보강(38억원) 등 38건 720억원이 반영됐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R&D(연구개발)사업 분야로는 전기연구원 광주지역조직 설립(17억원), 마이크로 의료로봇센터 구축(61억원) 등 59건 2053억원이 반영돼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 및 생태환경 분야 예산으로는 장애아동 및 발달 장애인 지원센터설치(3억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4억원), 무등산 생태탐방체험시설(42억원) 등 48건 1조1320억원이 반영됐다.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사업으로는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149억원), 동광주~광산JC간 호남고속도로 확장(22억원), 호남고속철도 광주도심구간 환경개선(57억원), 광주 순환고속도로 2구

■ 2016년도 주요 현안사업 정부예산안 반영 현황 (단위:억원)

□ 광주

사업명	총 사업비	16년 반영액
첨단실감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1,013	12
광주세계 웹콘텐츠 페스티벌 개최	144	5
그린빛을 인프라 조성사업	272	14
융복합·복합천 수질개선사업	150	5
수원종합체육관 건립	155	10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2,994	7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기술지원 기반구축	200	10
기술지주회사 설립 운영	130	10
광·복합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구축	250	10
상무지구~첨단 산단간 도로개설	1,645	21

간 건설(84억원) 등 40건 2158억원이 편성됐다.

전남도는 SOC 건설사업비가 부처 반영

□ 전남

사업명	총 사업비	16년 반영액
차부품 고급 브랜드화 연구개발	786	102
디자인 융합 Micro-모빌리티 신산업 생태계 구축	400	57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270	42
순천만국가정원 운영관리	308	33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 송정~목포)	24,731	1,100
남해안철도 건설(목포~보성)	13,083	250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	17,990	149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 사업	1,636	133
2016 장흥국제통합 의학박람회 개최 지원	190	40
한센인촌 '호혜원' 정주 환경 개선사업	145	145

액보다 증액 반영돼 SOC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광주 송정~목포 간 호남고속철도 2단

계 건설에 1100억원이 반영됐으며,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250억원),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건설(715억원), 압태~추포~비금 간 연도교 건설(31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밖에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연구개발(102억원),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51억원), 2016년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개최(40억원), 한센인촌 '호혜원' 정주 환경 개선사업(145억원) 등의 예산도 반영돼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내년도 신규사업 어떻게 있나? = 광주시의 내년도 신규 국비사업은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12억원), 그린빛을 인프라 조성사업(14억원), 수원종합체육관 건립(10억원), 노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7억원), 상무지구~첨단산단간 도로개설 등 신규사업 40건 909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광주의 성장동력인 문화·관광분야 및 R&D분야 신규 사업들이 상당수 반영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남도는 순천만 국가정원 관리모델 운영비 33억원이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면서 매년 국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또한,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비 270억원 가운데 내년도 사업비 42억원을 확보했

다.

◇미반영 예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중 광주·전남 주요 현안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제외됐다.

광주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기반조성(676억원), 경전선(광주~순천간) 전철화 사업(90억원)과 모듬형 다단계 변압기 기반 직류송전시스템 개발(147억원) 등 신규사업 및 증액이 필요한 일부 사업들의 예산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전남은 기능성화합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총 사업비 602억원), 광양항 24억 컨테이너 크레인 설치지원(360억원), 무안 국제공항 활주로 확장(400억원) 등은 모두 국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됐다.

이들 사업은 모두 전남도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이다. 또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해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여수~남해간 도로(동서해저터널) 건설, 백산산업 글로벌 산업화 기반구축 등에 대한 추가 증액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권영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성기자 chadol@kwangju.co.kr

보건·복지 122조 9000억... 올해보다 6% 증가

내년 정부예산 어디에 쓰나

지방교부세 36조 3.7% ↑

SOC 6%·에너지 2% ↓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청년고용 증대,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 등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10개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 등 2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올해 전체 예산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6.2%), 문화·체육·관광(7.5%), 국방(4.0%), 외교·통일(3.9%), 일반·지방행정(4.9%) 등 5개다.

국방 부문은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위해 전체 예산보다 높은 증가율이 적용됐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이 122조9000억원으로 6% 이상 늘어나 12개 분야 중 당차기 가장 크다. 복지 예산 비중은 31.8%로 사상 최고치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15조8000억원)은 12.8% 늘었고,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2조1200억원)은 21% 증액됐다. 이번 예산이 사실상 일자리 예산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2016년 정부 예산 분야별 재원 배분



복지 외의 주요 분야별 예산 배정액은 ▲문화·체육·관광 6조6000억원 ▲국방 39조원 ▲외교·통일 4조7000억원 ▲일반·지방행정 60조9000억원이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36조2000억원으로 3.7% 증가했다.

반면, SOC 예산(23조3000억원)은 6.0% 감액됐으며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점

노출에 따른 성공불용자 폐지 등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16조1000억원) 예산도 2.0% 줄었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0% 오르고 사병 월급은 15% 인상되도록 내년 예산이 짜였다.

재정 건전성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수입은 391조5000억원으로 2.4% 증가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누리과정 예산 '0' ... 광주·전남교육청 강력 반발

광주·전남 교육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2016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다. 광주·전남을 비롯, 일선 교육청들은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왔음에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대로라면 열악한 재정 여건에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자체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예산에 편성할 것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시행령 개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정부는 2016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시 교육청의 경우 내년 누리과정 예산으로 1407억원이 필요하다. 유치원생 2만 3907명에게 706억원, 어린이집 원아 2만 147명에게 701억원 등 4만4054명에게 지원해야 한다. 올해도 유치원에 683억, 어린이집에 595억원을 지원했다.

전남도 내년 누리과정 예산으로 1433억원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은 유치원생 1만

9983명에게 482억원, 어린이집 원아 2만 7326명에게 951억원 등 모두 4만7309명이다. 올해는 4만6075명에게 1천392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 기준에 학생 수의 비중을 31%에서 50%로 확대하면서 학생 수가 적은 전남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시교육감)은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어르신 돌봄포인트 적립·한류확산 K팝 강사 해외 파견

예산안 포함된 이색사업

정부가 8일 내놓은 2016년 예산안에는 다양한 이색사업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젊을 때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돌보며 '돌봄포인트'가 축적돼 본인이나 가족 또는 제3자가 돌봄서비스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4억원을 들여 경찰서장과 시민위원이 경미한 형사범을 심사해 훈방 또는 처분방

경 여부를 결정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시범운영한다.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범 죄예측 시스템도 구축한다. 10억29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하공간의 시설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하고 107억5700만원을 지원한다. 수익성 문제로 민간이 공급하지 않는 희귀 의약품 생산에 6억원이 들어간다. /연합뉴스

한류 확산을 위해 16억원의 예산을 들여 해외 한국문화원에 K팝 전문 강사를 파견한다.

10억원의 예산으로 독립음악인의 제작 및 공연을 지원하는 사업도 마련했다. 6·25 전사자의 출신지역과 묘교에 명비를 설치하는 사업에 27억6400만원이 들어간다. 국가 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정원에 36억원의 시설관리 운영비를 지원한다. /연합뉴스

의료광고심의필 제140611-중-59153호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인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의료광고심의필 제140611-중-59153호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